

모호한 서술과 열린 해석

- 『주홍글자』의 서술기법

조철원*

[국문초록]

『주홍글자』의 주인공 헤스터 프린을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들의 선과 악에 대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내적 심리상태 및 변화는 호손 나름의 독특한 서술방법을 통해서 여러 결의 모습으로 재현된다. 더불어서 벌어지는 객관적일 수 있는 사건도 화자는 확정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도록 서술하면서 열린 결말을 유도한다. 독자들은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는 화자의 서술을 끊임없이 접하면서 다른 결말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상상하고 짐작하게 된다. 서술의 모호성은 특히 소설 말미로 갈수록 심해지는데,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작가가 등장인물이나 청교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결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화자는 헤스터와 딤즈데일과 그들의 간통죄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들로 서술해가면서 가능한 많은 해석의 틈새를 보여준다. 독자들은 모호함 속에 빠져들면서 독서를 이어가지만, 그 모호성을 통해서 인간의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주제어: 호손, 『주홍글자』, 서술기법, 로맨스, 모호성, 다양성, 상상력, 청교사회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narrative technique, romance, ambiguity, diversity,
imagination, puritan society

삶에 어떤 고정된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작가의 생각과 가치관에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하고 독특한 서술기법들을 통해서 어느 하나도 확정지어 서술하지 않고 모호성 속에서 독자가 나머지 공백을 상상력으로 채울 기회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복합적인 화자의 서술을 통해서 작품 내내 무수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주홍글자』가 아직도 현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17세기를 시대 배경으로 한 19세기 작품이지만, 그러한 모호성 속에서 의미있는 열린 해석이 지금의 독자들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1. 서론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주홍글자』(*The Scarlet Letter*)의 주요 등장인물들인 헤스터 프린(Hester Prynne), 아서 딘즈데일(Arthur Dimmesdale), 로저 칠링워스(Roger Chillingworth), 펄(Pearl)의 선과 악에 대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내적 심리상태 및 변화는 호손 나름의 독특한 서술방법을 통해서 여러 결의 모습으로 재현된다.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분류/서술로는 복잡한 인간사와 그들의 미묘한 내면을 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주홍글자(the scarlet letter) ‘A’도 간통(adultery)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징성¹⁾을 가진 글자로 독자들에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작품내내 제공한다. 작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나 그것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외적/내적 반응들이 어느 하나로 서술되어 규정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여러 갈래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했던 것이다.

호손은 상징적인 주홍글자 A를 통해서 다양한 의미를 제공할 뿐만 아

1) 헤스터가 평생 가슴에 달고 다녀야 할 A는 간통(adultery), 천사(Angel), 능력(Able), 예술(Art), 연인 딘즈데일 목사의 이름(Arthur)등을 상징하면서 작품을 통해 의미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나라, 작품 곳곳에서 작가 나름의 독특한 서술기법들을 통해서 화자의 대부분 서술들이 고정된 의미로 해석되기를 거부하면서 독자들의 상상력을 끌어낸다. 그래서 『주홍글자』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때때로 정반대의 수많은 설명/해석들은 비평가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매티슨(F.O. Matthiessen)은 『주홍글자』는 화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선택”(multiple choice)들 가운데 독자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의미를 찾아내는 텍스트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²⁾ 하지만 『주홍글자』를 처음 접한 독자들은 집중해서 읽어도 작품 곳곳에서 의미하는 바가 뚜렷하게 다가오지 않고 점점 더 모호(ambiguous)해 진다고 불평하기도 한다.³⁾ 이는 『주홍글자』의 주제이기도 한 인간사의 결과로서의 나타나는 ‘죄’에 대해 등장인물들이 결코 동일하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복잡다단한 인간 내면 상태와 변화를 다층적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작품 속에서 재현해 내려는 호손의 의도적인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주홍글자』의 화자는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모호하게 서술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선 서술과는 정반대로 서술을 하는 등 일관성이 없기까지 하다. 이런 모호하면서 일관성이 결여된 서술을 일삼는 화자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한 장면에서는 사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이 단정적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품 속으로 직접 끼어들어 특정인물이나 사건에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장면에서는 전지적 화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하면서 독자들을 헛갈리게 만들기도 한다.

2) Matthiessen, F.O. (1979), *American Renaissance: Art and Expression in the Age of Emerson and Whitman*, NY: Oxford UP, pp. 242-252.

3) 『주홍글자』를 읽으면 읽을수록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이 모호하고 때때로 일관적이지 못해서 혼란스럽고 인물상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독자들이 많다. “딤즈데일은 이렇고, 헤스터는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 장면의 의미는 이런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된 의견을 갖기가 결코 쉽지 않다.

식민지 시절 청교도들이 일부 마을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고문하고 처형했던 미국 역사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면서 일찍부터 내면에 어두운 그들이 있었던 호손은 형식적인 종교적 규범의 틀에 사로잡혀서 마을 사람들을 재단하려 했던 당시 위선적인 종교, 사회풍토 및 지도층에 대해서 분개했고 이를 『주홍글자』를 통해 묘사해내려고 했다. 『주홍글자』에서 식민지시대 뉴잉글랜드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조상의 가혹한 행위에 대한 작가의 엄정한 비판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상상적 사건뿐만 아니라 그 아픈 사건을 견뎌내야 하는 등장인물들의 내적 갈등과 깊은 고뇌에 대한 세심한 이해를 통한 재현으로 드러난다. 호손은 헤스터와 딘즈데일의 간통 사건 및 그로인해 수반되는 등장인물들 내면의 고통과 아픔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이해를 복합적인 서술기법을 통해서 풀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독자들은 화자의 서술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서술에 대한 이해 및 거기서 시작된 나름의 상상을 통해서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때로는 일관성이 없는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독자들은 퀘이커 교도들과 정착민 인디언들을 박해하고 마녀 사냥했던 선조들에 대한 작가의 죄의식 및 역사의식을 입체적으로 접하게 된다. 화자는 역사적 사건이나 그것에 대한 반응을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묘사로 서술을 이어가기보다는 모호하게 서술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면서 사건이나 인간내면의 다양한 반응에 실제적으로 접근하게 한다. 『주홍글자』의 이해가 쉽지는 않는 것은 호손이 자신의 작품이 한 가지 고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서술전략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하는 상징과 함께 모호한 서술 및 화자의 일관성 결여 등은 아이러니하게도 『주홍글자』가 이루어낸 가장 큰 예술적 성취이다. 모호한 서술들이 독자들에게 풍부한 선택거리를 주고, 더 나아가서 독자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유도하면서 17세기 청교도 식민시대의 역사와 사람들의 내면심리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인식의 폭을 넓혀준다.

호손이 헤스터와 딘즈데일 목사 사이의 간통 사건을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피해를 입은 칠링워스가 명예를 회복하고 명백한 간통죄를 저지른 헤스터와 딘즈데일을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청교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겠지만, 그들의 간통사건을 간단하게 보지 않았던 호손은 작품 속에서 여러 서술기법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단순한 해석에 순응하지 않고 인물과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다층적으로 해석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2. 로맨스론

호손은 『주홍글자』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관」(“The Custom House”)에서 자신의 작품을 로맨스라고 밝히면서, 로맨스를 현실세계와 상상세계의 “중립지대”(the neutral territory)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상시 방바닥은 실제세계와 꿈나라 사이 어딘가에 있는 중립지대가 되었다. 그런데 중립지대에서는 **현실세계와 상상세계가 서로 만나면서 각각 상대방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 유형들이 이곳에 들어와도 우리를 조금도 놀라게하지 않을 것이다. (28, 필자강조)⁴⁾

‘로맨스’라는 장르가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시대를 배경으로 중세 기사들의 영웅적 모험담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독자라면,⁵⁾ 호손의 로맨스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다소 당황하게 된다. 일반적

4) Nathaniel Hawthorne (1988), *The Scarlet Letter: An Authoritative Text*. NY: W.W. Norton, 1988, p. 28. 앞으로 본문에서 『주홍글자』 텍스트 인용의 경우는 위의 판본을 사용하고, 괄호 속에 쪽수를 매기기로 함.

5) They were fantastic stories about marvel-filled adventures, often of a knight errant

으로 받아들여지는 로맨스의 정의와는 달리, 호손의 로맨스는 사실적이면서도 낭만적인 특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중립지대”이며, 『주홍글자』가 바로 그 “중립지대”가 재현되는 장소이다.⁶⁾ 실제로 『주홍글자』는 중세기사들의 전형적인 모험담(narrative of chivalric adventure)이나 판타지, 탐정소설 등의 비현실적인 장르가 아니고,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매우 생생하게 서술되는 새로운 성격의 로맨스인 것이다.

작품 속에서 한 예로, 주인공 헤스터는 자신의 가슴에 단 주홍글자를 통해 주변 마을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죄를 직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의 능력은 헤스터나 마을사람들이 믿고 판단하는 대로 악마에서 영향받은 것이라면 매우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라면 매우 현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사람들이 헤스터의 주홍글자가 지옥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헤스터는 마을사람들과 눈빛의 교감을 통해서 현실에서 그들의 죄성을 파악하고 있다. 화자는 주인공 헤스터가 직관을 통해서 파악하는 마을사람들의 그늘진 내면을 생생하게 서술함으로써 비현실적인 것들을 현실화시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호손이 주장한 상상과 현실의 중립지대는 현실과 상상이 서로 혼합되어 서술된다. 작중 인물들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결코 비현실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호손이 정의한 현실과 상상의 중립

portrayed as having heroic qualities, who goes on a quest, yet it is the emphasis on heterosexual love and courtly manners distinguishes it from the *chanson de geste* and other kinds of epic, in which masculine military heroism predominates. (http://en.wikipedia.org/wiki/Chivalric_romance)

- 6) 20세기 초 대표적 미국비평가인 리처드 চে이스(Richard Chase)가 『미국소설과 그 전통』(*The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에서 19세기 미국소설의 전통을 로맨스라고 정의하면서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시대로서의 로맨스는 현실에 보이지 않는 듯하면서도 실재하는 인간내면의 진실을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적합한 소설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호손이 현실과 상상의 중립지대로서의 로맨스이자 새로운 형식의 소설인 『주홍글자』는 디킨스(Charles Dickens) 등 동시대 영국작가의 사실주의 소설(novel)들과 달리 경제적인 요소도 작품 전면에 부각시키지 않는다. 19세기 사실주의 소설에 익숙한 독자라면, 작품 속의 헤스터가 죄인의 낙인이 찍혀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할 것으로 짐작하고 그것으로 인한 사건들이 현실에서 연이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주홍글자』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부각되지 않는다. “자신[헤스터]이 바느질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바느질할 수 있을 만큼 언제든지 상당한 수입이 있는 일거리”(ready and fairly requited employment for as many hours as she was fit to occupy with her needle, 58)가 주어진다. 이는 정도의 간결한 서술은 당대 사람들의 실제의 삶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경제문제를 세밀하게 다루는 유럽 사실주의 소설들의 일반적인 서술들과는 분명 성격이 다른 것이다.

현실과 상상의 복합체로서의 로맨스는 팽창 위주의 획일적인 성장과 발전을 염두에 두면서 국토의 팽창이 시대적 요구인 19세기 당시 호손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르였다. 호손이 『주홍글자』에서 서술하고자 한 것은 표면에 보이는 인간사의 결과보다는 당시 드러내놓고 묘사하기에는 힘든 어두운 미국역사와 인간내면의 진실추구였기 때문이다. 상상과 현실의 조합으로서의 로맨스를 통해서 작가는 등장인물의 내면 묘사에 집중하고 그것을 현실로 끌어들임으로써 과거의 역사적 과오와 현재의 답답한 현실을 효율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시대에 대한 반성적/성찰적 태도로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팽창만을 목표로 하는 삶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이 의미있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3. 복합적인 서술

『주홍글자』의 화자는 소설작품들의 일반적인 화자와는 달리 하나의 일관된 시점을 견지하지 않는다. 화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제한적인 사실과 정보만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다가도, 어느 장면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어서 등장인물 내면의 세밀한 심리변화를 자세히 서술해주기도 한다. 게다가 작품에 직접 개입해서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확정적인 평가까지 내린다. 하지만, 그러다가 또 다른 장면에서는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에 거리를 두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곳곳에서 독자들이 해석하려는 의지를 방해하기도 한다. 특히 인물의 내면 묘사에 있어서 앞선 서술과 정반대 서술의 가능성을 자주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을 혼란에 빠지게까지 한다. 화자의 서술을 통해서 독자들이 여러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자 하는 것이다. 호손은 현실 한 순간에 보이는 내적인 혹은 외적인 상태가 결코 진실의 모든 모습이 아닌 것으로 믿고 있다. 과거의 역사나 현재의 인간사에 있어서 『주홍글자』의 간통으로 인한 결과와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관성이 없고 때때로 주저하는 듯한 화자의 서술을 따라야 하는 독자는 매우 당혹스럽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잘 알고 있는 듯한 화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낳게 하는 유보적인 결론을 맺기도 한다. 소설 초반에 나오는 들장미 덩굴(rose bush)에 대한 아래와 같은 서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들장미 덩굴은 이상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살아남아 있다. 본디 들장미 덩굴을 뒤덮고 자라던 우람한 소나무와 참나무가 쓰러지고 한참이 지난 뒤에도 옛날의 황야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것인지, 아니면 꽤 믿음만한 근거가 있듯 성자 같은 앤 허친슨이 감

옥 문안으로 들어갈 때 그녀가 발로 밟은 땅에서 솟아난 것인지, **이 에 대해서는 뭐라고 단정짓지 말기로 하자.** 지금 막 저 불길한 감옥 문에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첫머리에 들장미 덩불을 그렇게 직접 발견했으니 우선 그 꽃 한 송이를 꺾어 독자들에게 바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꽃 한 송이가 어찌면 우리의 이 이야기 도중에 만나게 될지도 모를 어떤 향기로운 도덕의 꽃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을 다룬 이 이야기의 어두운 결말을 좀더 완화시켜주기를 바란다. (36, 필자강조)

위 인용에서와 같이 들장미 덩불의 근원에 대해서 화자는 그것이 무엇이고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감히 단정짓지” 못하게 하면서 독자들이 가능한 열린 해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작품 초반부터 유보적인 서술에 접한 독자들은 나름의 추측을 통해서 감옥문 앞에 핀 들장미 덩불이 단순한 식물이 아니고, 그 들장미가 피어있는 감옥문이 일반 감옥문과 다를 수 있다는 상상도 하게 된다. 이런 모호한 서술로 감옥문을 나서는 헤스터가 현실에서는 간통을 저지른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로부터 예측하지 못할 희망적인 미래가 담지될 수도 있다는 정반대의 해석도 할 수 있게 한다.

화자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서술은 사건이나 사물보다는 등장인물의 내면을 묘사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장에서 헤스터가 본격적으로 소개될 때 독자들은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 않는 서술들을 접한다. 화자는 주인공 헤스터를 “성모마리아의 이미지”(the image of Divine Maternity, 41)로 매우 상찬하기도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만약 이 청교도들의 무리 속에 가톨릭 신자가 있다면 옷과 풍모가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여인이 가슴에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로부터 그토록 많은 유명 화가들이 앞을 다투어 그리

려 했던 성모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녀의 모습은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를 안고 있는 신성무구한 성모 마리아의 거룩한 모습 같은 것을 분명히 **떠올리게 해 주었을 것이다**. (41, 필자강조)

헤스터가 성모 마리아의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might have seen)이라는 서술을 접하면, 독자는 바로 앞 장에서 헤스터를 가리키는 듯한 “들장미 덩굴”(the rose-bush)이 황량한 옛 황야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것인지 혹은 성자의 발밑에서 솟아나왔는지를 단정짓지 말자고 언급한 화자를 떠올리게 되면서, “성모 마리아” 이미지도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짐작하게 된다. 독자들은 “성모마리아” 이미지 바로 앞 서술에서 “거만한 미소”(a haughty smile, 39)를 짓는 타협할 줄 모르는 헤스터를 만나기도 했다. 연속적인 일관성 없는 서술들로 매우 불만스럽기도 하지만, 사건이나 인물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속성을 파악하고 그것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세밀하게 서술하려는 작가의 의도에 익숙해지면, 독자들은 인물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인식의 폭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독자들은 앞으로 전개될 헤스터를 결코 단순하게 평가 내리려고 하지 않게 된다.

덤즈데일 목사의 경우도 화자는 여러 층위의 내면을 복합적으로 때로는 모호하게 묘사함으로써, 그가 성직자임에도 간통죄를 숨기면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하는 위선적인 인물이라는 확실적인 평가에서 벗어나게 한다(48). 간통죄를 범한 목사가 존경받는 목사로 처신할 때, 그를 위선적인 인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교를 해야 하는 덤즈데일이 “초상화가 그림에서 걸어나와 인간의 죄, 욕망, 그리고 고통의 질문에 연루될 자격이 없듯이, 그 또한 아무 자격이 없었다”(had no more right than one of those portraits would have to step forth, as now he did, and meddle with a question of human guilt, passion, and anguish.)라는 서술을 통해서 목사 덤즈데일의 죄성을 강화하면서 그의 인격까지 폄하

한다(46). 하지만, 바로 다음 서술에서 딤즈데일의 설교가 하늘나라 “천사의 언어”(the speech of an angel)라고 상찬하면서 진정성 있게 고뇌하는 딤즈데일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면서 그가 결코 위선자가 아닌 진정으로 자기성찰을 하면서 청교사회의 안녕을 위해 깊이 있게 고뇌하는 성직자라는 평가도 할 수 있게 한다.

그[딤즈데일]의 모습은 오래된 설교 책 앞장에 찍혀 있는 거무스름한 판화 초상화와 비슷했다. 이런 초상화 중 하나가 걸어나와서 인간의 죄악이며 정열이며 고뇌 같은 문제를 간섭할 권리가 없듯이 그에게도 그런 권리가 없는 듯했다. (46)

이 젊은 목사는 영국의 어느 명문 대학교 출신으로 이 무렵의 모든 학문을 이곳 황야에 옮겨 왔다. 그의 말솜씨와 종교적 열정은 종교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의 용모는 눈에 띄게 아주 수려하고, 이마는 환하고 높게 튀어나왔으며, 큼직한 갈색 눈은 수심에 잠겨 있었고, 입은 굳게 다물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떨고있는 것 같아서 신경이 과민하고 굉장한 자제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타고난 재주와 학자다운 교양이 풍부하면서도 이 젊은 목사의 몸가짐에는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불안스럽고 놀라고 조금 겁먹은 듯한 표정이 감돌고 있어, 마치 인생 항로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서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사람 같았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임무가 허락하는 한 그늘진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순박하고 어린이처럼 천진한 마음을 유지했다. 그리고 필요할 때면 신선함과 그윽한 향기와 이슬처럼 해맑은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사의 말로 그들을 감동시켰다. (48)

딤즈데일 목사는 작품 후반부 숲 속에서 헤스터와 7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를 할 때, “희망과 기쁨에 빛나는 눈길로 헤스터의 얼굴을 바라볼”(gazed into Hester’s face with a look in which hope and joy shone out,

135) 정도로 어느 때보다도 인간으로서 한없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화자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가 “희망과 기쁨의 중간지대라고 할 불안의 빛과 함께 … 말할 수 없는 일종의 공포의 빛도 어려있었다.”(with fear betwixt them, and a kind of horror at her boldness, … hinted at but dared not speak. 135)라고 묘사하면서 그가 간통죄에서 해방되어 “희망과 기쁨”의 세계로 곧바로 갈 수 없다고 서술한다. 독자는 모순되는 서술들을 통해서 덤즈데일 목사의 상황과 그의 내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헤스티와 재회를 통해 미래의 행복감에 도취되었던 덤즈데일이 마을로 돌아오던 가운데 갑자기 악마의 유혹에 빠진 듯한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화자가 앞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덤즈데일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서술해왔기에 독자들은 여기서 또 다른 모습의 덤즈데일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재회와 같은 하나의 사건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만큼 고뇌하고 깊이 있게 자신을 성찰해오던 성직자로 알기에, 악마의 유혹에 빠져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또 다른 진정한 성직자가 되기 위한 고난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간통죄를 저지르고도 성직자 행세를 하는 위선적인 인물로 보지 않고 성스러운 “천사의 말”을 전달하는 성직자의 진정한 모습을 접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처형대에서 고백하고 죽는 장면에서 “승리를 거둔 자”(one who had victory)라는 화자의 서술에 완벽하게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독자들의 인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악인’으로 단순하게 치부될 수 있는 칠링워스의 경우도 화자의 복합적인 서술을 통해서 독자들은 단정적인 해석을 유보하게 된다. 칠링워스가 마지막 장면에서 펄에게 전달하는 뜬금없는 화해의 선물은 비록 덤즈데일 목사의 마지막 속죄의 고백과는 깊이에 있어 비교가 되지 않더라도, 화자가 작품 여러 곳에서 칠링워스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의미있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독자들이 칠링워

스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복수심에 가득찬 집요한 그가 인간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유일한 목적(their owner's purpose to read the human soul, 43)인 학자가 덤즈데일 목사의 죄를 가차없이 추궁하는 모습에서 일말의 연민의 감정도 느낄 수 없다. 하지만, 화자는 칠링워스가 헤스터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밝히게 하면서, 그도 결코 완벽한 악인이 아니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느낄 수 있는 인간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헤스터.” 그가 말했다. “난 당신이 왜, 또 어떻게 해서 그런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아니, 내가 당신을 발견했던 그 치욕의 처형대 위로 올라서게 되었는지 묻지 않겠소. 그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어리석고 당신이 나약했기 때문이오. 나처럼 사색을 즐기는 사람이, 여러 훌륭한 도서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식에 굶주린 꿈을 꾸느라고 가장 좋은 세월을 허송하다가 이미 시들어 버린 사람이, 당신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무슨 연분이 있었겠소. 태어날 때부터 불구인 내가 타고난 지적 능력을 사용하여, 내 육체적 결함을 젊은 여자의 환상을 통해 감추어 보려고 한 게 얼마나 부질없는 망상이었는지! (52-53)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칠링워스를 악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칠링워스는 스스로 악마로 변한 모습을 인정하기까지 했다. “한때는 인간다운 마음을 지녔던 한 사람이 그[덤즈데일]를 특별히 괴롭히려고 마귀”(a mortal man, with once a human heart, has become a fiend for his especial torment!, 117)로 변했다. 화자는 칠링워스를 악마의 모습으로 그려내되, 그 역시 결코 단순 악마가 아니고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가 깊은 덤즈데일 못지않은 “고뇌가 가득한 고통의 마음”(a heart of full of torture, 116)을 가진 복합적인 인물로 묘사한다.

펠도 화자의 복합적인 서술로 독자들에게 다양한/다층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다가온다. 헤스터와 딤즈데일이 청교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낯은 악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둘에게는 사랑의 열정(passion) 속에서 하나님님이 주신 선물이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 화자는 다른 등장인물 묘사에서도 그랬듯이, 펄에 대해서도 앞의 부정적 서술을 반복하기도 하는 등 모호한 서술을 한다.

펠의 용모에는 변화무쌍한 마력이 어려 있었다. 말하자면 이 아이의 내부에는 농부의 딸이 지닌 들꽃과 같은 아름다움에서부터 어린 공주가 지닌 화려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을 포함하는 많은 아이가 들어 있는 것 같았다. (63)

...

악마 같은 얼굴로 악의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 생김새와 닮아 있었다. 물론 낮익은 그 얼굴은 좀처럼 악의에 찬 미소를 지은 적이 없었고 결코 악의를 품은 적도 없었다. 마치 아기가 그 아이를 사로잡아 비웃으며 빠끔히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뒤로 헤스터는 이때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환상에 시달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67)

펠은 청교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간통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비록 총명하고 예쁜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도 질서가 흐트러진 존재로 태어났다. 다시 말해서 펄은 신이 지배하는 “위대한 법칙”(the great law, 63)을 깨고 태어난 것이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위대한 법칙이 깨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이 아이를 이루는 구성 성분은 어쩌면 아름답고 찬란할지 모르지만 질서가 모두 없어져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다. 비록 질서가 있다고 해도 그 성분은 그것만의 고유한 질서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변화와 배합의 중심점을 찾기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다. (63, 필자강조)

하지만, 여기서 위대한 법칙(the great law)은 신의 위대한 법칙이 아니고 당시 청교도 사회를 지배하던 법칙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헤스터의 행동에 대한 당대 청교사회의 과도한 법칙에 의해서 헤스터는 임신 내내 걱정 속에서 살았고(Above all, the warfare of Hester's spirit, at that epoch, was perpetuated in Pearl. 63) 그와 같은 가혹한 사회의 커다란 법칙이 헤스터를 걱정케 시달리게 하면서 질서가 흐트러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질서가 흐트러진 펄의 모습은 헤스터가 신의 법칙을 어겨서가 아니고, 당대의 혹독하리만큼 엄격한 법칙 때문이여, 비판의 대상은 헤스터가 아니라 청교사회의 비인간적이고 엄격한 청교사회의 도덕주의가 되는 것이다. 화자는 위대한 법칙이 의미하는 바를 모호하고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악의 결과로 펄을 해석하는데서 벗어나서 독자들은 펄 대신에 청교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서술로 인해서 펄은 흐트러진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도 독특한 질서”(an order peculiar to themselves, 63)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호한 서술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펄을 단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과연 펄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작품을 계속 읽게 된다.

특히 펄은 몇 번의 만남을 통해 덤즈데일과 교감을 쌓으면서, 덤즈데일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와 입맞춤하면서 아버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속죄되었다고 선언하는 심판자의 목소리를 내기까지 한다.

펄은 목사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드디어 마법이 풀렸다. 이 야성의 어린아이도 한뭉을 말았던 이 장엄한 비극의 장면을 통

해 아이의 동정심을 모두 싹트게 했다. 펄의 눈물이 아버지의 뺨에 떨어질 때, 그것은 이 아이가 인간의 기쁨과 슬픔 속에서 자라서 앞으로는 영원히 세상과 다투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한 여인이 되겠다는 맹세였다. 또한 어머니에 대해서도, 고뇌의 사자로서의 그녀의 역할도 이제는 모두 끝이 났다. (173)

화자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펄이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모호하게 서술해왔기에 마지막에 심판자로서 펄의 역할도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미래의 펄에 대해 기대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주홍글자』의 화자는 인물이나 사건에 거리를 두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직접 개입도 하는 등 사건과 등장인물들의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독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유도한다.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게도 독자의 다양하고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비록 불확실하고 믿지 못할 화자로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이런 저런 모습의 사건과 등장인물의 내면을 이해하고 또 상상하면서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호손의 의도적인 독특한 서술기법인 것이다.

4. 정보의 유보, 독자의 참여와 상상력 유도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등장인물들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해보게끔 하는 복합적 서술과 더불어서, 독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호손의 화자는 때때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면, 헤스터가 남편 칠링워스를 알아보는 장면에서 그가 헤스터의 남편이라는 것을 바로 서술하지 않는다. 독자가 그가 남편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할 뿐이다. 주의깊은 독자라면 마을사람들을 “심장이 울

릴 정도로 떨게 하는” 상대편이 중요한 인물임을 짐작하지만 누구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다. 3장에서는 “한쪽 어깨가 올라간”(one of this man’s shoulders rose higher than the other, 44)이라는 묘사에서 화자의 서술을 제대로 따라온 독자라면 그가 바로 헤스터가 기억하는 학자(with the left shoulder a trifle higher than the right, 43)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그가 헤스터의 남편이라고 명시적으로 서술하지 않지만, 헤스터의 내면을 넘나들었던 화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독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그가 헤스터의 전 남편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된다. 이는 묘사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 서술하는 것보다 그가 어떤 모습과 성격의 소유자인가를 주시하면서 독자의 상상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서술이다.

또 다른 예로, 덤즈데일이 펄의 아버지라는 명시적으로 서술되지 않고, 목사의 설교 목소리를 세밀하게 묘사하거나(tremulously sweet, rich, deep, and broken, 49)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caused it to vibrate within all hearts)을 살피면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판단을 하게끔 한다. 모든 것을 밝히지 않고 넉넉히 여러 정황이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가 헤스터와 간통을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해석까지 했던 작품 초반 전지적 화자와는 달리 중심인물들을 에둘러서 묘사하는 서술들은 헤스터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품을 이끌고 가면서 독자들의 상상과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서술기법이다.

화자는 불특정 마을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관찰하고 파악한 것들을 간접서술하기도 한다. 사건의 추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최종 평가는 독자들의 상상과 판단에 맡긴다. 예를 들면, 작품의 마지막인 24장에서 “대부분의 구경꾼”(most of the spectators, 174)들이 처형대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죽는 덤즈데일 목사 가슴에 새겨진 (것 같은) 주홍글자에 대해 증언했는데, 그것에 원인과 평가에 대해서 화자는 여러 다양한 목격자들의 입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서술한다.

① 헤스터 프린이 처음 치욕의 징표를 달았던 바로 그날 덤즈데일 목사가 자신에게 끔찍스러운 고문을 가해서 참회의 고행을, 여러 가지 부질없는 방법을 썼다가 마침내 그 고행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② 다른 목격자들은 낙인은 오랫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가 유능한 마술사인 로저 칠링워스가 마술과 독약의 힘을 빌려 밖으로 나타나게 했다고 주장한다. ③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 즉 목사의 독특한 감수성과 그의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놀라운 작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무서운 상징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참회라는 이빨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즉 참회의 이빨이 가장 깊은 가슴 속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잡아먹은 나머지 마침내 그 글자가 눈에 띄게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다. ④ 심지어 아무런 낙인도 찍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고 덤즈데일 목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돌린 적이 없다고 장담하는 몇몇 사람들은 목사의 가슴에는 막 태어난 갓난아이의 가슴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징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74)

덤즈데일 목사의 가슴에 새겨진 (것 같은) A글자에 대해서 목격자들의 주장들을 차례로 제시하면서 독자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고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The reader may choose among these theories. 174). 이는 마을사람들의 경험이나 심리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고 해석되기에, 어느 하나의 확정된 해석은 진실과 거리가 멀고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대중의 미묘한 심리를 알고 있는 호손은 여러 목격자들이 관찰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독자들의 평가에 맡기고 싶었던 것이다. 독자는 지금까지 독서실감으로 축적된 인식의 폭에 따라 나름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헤스터는 청교사회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이상사회가 남녀가 같이 변화된 후에 사회전체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는 선진적 사고를 해왔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소통하면서 형성되는 따뜻한 감정

(passion)이 헤스터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화자는 서술한다. 고통의 7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고집했던 헤스터의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태도도 화자는 헤스터에게 따뜻한 감정이 배제된 “슬픈 변화”(a sad transformation)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화자는 헤스터가 갖고 있는 열정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마음 속 깊은 곳에 되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다. “한때는 여자이었고, 지금은 여자이기를 멈추었지만, 변화를 일으킬 마법의 손길이 있다면 다시 여자가 될 수 있다”(She who has once been woman, and ceased to be so, might at any moment become a woman again if there were only the magic touch to effect the transfiguration, 112)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 초반부터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들장미 덩굴에 대한 모호한 서술을 경험한 독자들은 헤스터의 현재의 “슬픈 변화”도 결코 확정적이지 않고 유보적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즉, 열정의 불씨가 다시 소생할 것을 기대하면서 헤스터의 현재 차가운 모습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새로운 헤스터의 소생 가능성을 기대하게 된다.

화자는 “슬픈 변화”가 “심장이 최고의 상태로 상승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If here heart chance to come uppermost, they vanish. 113)라고 서술한다. 심장뛰는 감정이 최고조로 고양된 상태는 태양 빛이 흘러넘치는 18장(“A Flood of Sunshine”)에서 헤스터와 딘즈데일이 재회하는 장면에서 드디어 나타난다. 7년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늘 쓰고 다녔던 모자를 벗어던지자 헤스터는 충만한 여성성을 회복하면서 딘즈데일 목사를 감격적으로 포용하게 되는데, 이는 헤스터가 억압의 청교사회에서 잃어버린 감정이 되살아난 장면으로 화자는 “신비로운 원을 만드는 시간”(the magic circle of this hour)이 되었다고 서술한다. 억압의 상태에서 7년을 억압 속에서 지냈던 주인공 헤스터가 따뜻한 감정과 여성성이 충만하게 회복된 이 장면에서 『주홍글자』가 끝이 나도 독자들에게

는 결코 불만이 없을 수도 있다.

치욕의 징표가 없어지자 헤스터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과 함께 치욕과 고뇌의 무거운 짐도 그녀의 마음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아,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가. 헤스터는 자유로운 기분을 맛보게 되어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뒤이어 무슨 충동이 일었는지 그녀는 머리카락을 감싸고 있던 모자를 벗어 버렸다. 그러자 윤이 나는 검은 머리카락이 그림자와 빛과 함께 풍성하게 그녀의 두 어깨 위로 떨어져 내리면서 그녀의 얼굴은 부드러운 매력을 띠었다. 여성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온 듯한 화사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가 입가에 떠돌고 두 눈에 감돌았다. 오랫동안 그렇게도 창백하던 두 뺨에는 주홍빛이 불그레하게 감돌았다. 여성으로서의 성과 청춘과 온갖 풍요로운 아름다움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되찾을 수 없는 과거에서 다시 돌아와 현재라는 마법의 둥근 원 안에서 처녀시절의 희망, 그리고 전에는 전혀 몰랐던 행복과 함께 뒤섞였다. (138)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딤즈데일과의 격정적 포옹으로(She threw her arms around him, and pressed his head against her bosom; little caring through his cheek rested on the scarlet letter. 138) 여태껏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치욕을 떨쳐버린 것이다”(The stigma gone. 138).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숲속에서 사랑하는 딤즈데일과 같이 지내면서 충만한 여성성의 아름다움을 발산했고, 주변 엄숙한 분위기까지 바꾸어버렸다. 헤스터가 사회의 억압에서 풀려났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되찾은 헤스터가 딤즈데일과 함께 청교사회를 떠나려는 계획을 당당한 다음 수순으로 독자들은 기대하게 되는데, 화자는 독자들의 기대를 다시 저버리면서 그 행복했던 모습도 바로 사라진다고

강하게 서술한다. “수치와 절망과 고독! 이런 것들은 그녀의 엄격하고 혹독한 스승들이었고,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매우 잘못 가르치기도 했다”(Shame, Despair, Solitude! These had been the teachers,--stern and wild ones,--and they had made her strong, but taught her much amiss. 136). 죄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헤스터와 유럽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던 덤즈데일도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획득한 숲을 떠나 마을로 돌아오게 되자, 이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충동적인 악마의 욕구가 내면에서 분출하게 된다.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헤스터에게서 그동안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은 인간적인 모습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죄가 시작되었고 아직 속죄가 끝나지 않은 청교사회에서 책임없이 벗어나려는 헤스터와 덤즈데일을 긍정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청교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죄를 완전하게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고 청교사회를 떠나려는 헤스터와 덤즈데일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한다. 청교사회와도 새롭고도 의미있는 화해의 모습을 창조하고 싶은 것이다. 작품 마지막까지 호손은 화자를 통해 독자들의 상상력을 유도하면서 새로운 의미 있는 모습을 창조하고 싶었고, 작가 나름의 독특한 모호한 서술기법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모호한 서술을 해왔기에 새로운 의미가 예술 작품 속에서 창조될 수 있는 것이다.

5. 맺는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주홍글자』의 화자는 사건이나 인물묘사에 있어서 독자들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확정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열린 결말을 유도한다. 독자들은 작품 처음부터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는 화자의 서술을 접하면서 다른 결말이 가능하

리라는 것을 상상하고 짐작하게 된다. 서술의 모호성은 특히 소설 끝으로 갈수록 심해지는데, 독자들은 이를 통해 작가가 등장인물이나 청교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결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화자는 헤스터와 딘즈데일과 그들의 간통죄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로 서술해가면서 가능한 많은 해석의 틈새를 보여준다. 독자들은 모호함 속에 빠져들면서 독서를 이어가지만, 그 모호성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어떤 고정된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작가의 생각과 가치관에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하고 독특한 서술기법들을 통해서 어느 하나도 확정지어 서술하지 않고 모호성 속에서 독자가 나머지 공백을 상상력으로 채울 기회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복합적인 화자의 서술을 통해서 작품 내내 무수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비록 17세기를 시대 배경으로 한 19세기 작품이지만, 『주홍글자』가 아직도 현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모호성 속에서 의미 있는 열린 해석이 지금의 독자들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자 료】

Hawthorne, Nathaniel (1988), *The Scarlet Letter: An Authoritative Text*. NY: W.W. Norton.

【논 저】

Brodhead, Richard H (1982), *Hawthorne, Melville and the Novel*. Chicago: UP of Chicago.

Chase, Richard (1980), *The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Colacurcio, Michael J. (1986), "Footsteps of Ann Hutchinson: The Context of The Scarlet Letter." in Harold Bloom ed., *Nathaniel Hawthorne's The Scarlet Letter*, NY: Chelsea House Publishers.

Kaul, A.N. (1966), *Hawthorne: Twentieth Century Views*. NJ: Prentice-Hall Inc.

Kesterson, David B (1988), *Critical Essays on Hawthorne's The Scarlet Letter*. Boston: G.K. Hall Co., 1988.

Lawrence, D.H. (1983), *Studies in Classical American Literature*. Penguin Books.

Martin, Terence (1965), *Nathaniel Hawthorne*. Boston: Twayne Publishers, Inc.

Matthiessen, F.O. (1979), *American Renaissance: Art and Expression in the Age of Emerson and Whitman*. NY: Oxford UP.

Murfin, Ross C. (1991), *The Scarlet Letter*. NY: St. Martin's.

"Chivalric romance"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Sep. 1, 2014. <http://en.wikipedia.org/wiki/Chivalric_romance>

원고 접수일: 2014년 11월 1일

심사 완료일: 2014년 11월 4일

게재 확정일: 2014년 11월 5일

ABSTRACT

Ambiguous Narration and Open Interpretation

- The Narrative Techniques in Nathaniel Hawthorne's *The Scarlet Letter*

Cho, Chulwon*

The complex, multilayered psychological conditions and change regarding good and evil that the main characters of *The Scarlet Letter*, including the protagonist Hester Prynne, undergo are reproduced through Hawthorne's unique narrative technique. Moreover, by not describing arising incidents which could have been objective, the narrator elicits open-endings based on the possibilities of various interpretations. Readers assume that numerous endings are possible as they encounter the narrator's ambiguous and inconsistent descriptions throughout the story. The ambiguity of the narration increases more so as the novel approaches its ending, causing the readers to realize that the author's attitude towards the Puritan society is not univocal.

Describing the different perspectives about Hester and Dimmesdale's adultery, the narrator reveals many gaps in the various possible interpretations. Although the readers get lost within the ambiguities of the story, they begin to agree with the author's thoughts and values that are

*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vealed through the ambiguous narration: there is no fixed meaning in human life. Through the various, unique narrative technique, the narrator avoids telling the story with certainty and readers ar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fill the spaces of ambiguity with imagination. The narrator's complex depictions allow the possibilities of infinite interpretations throughout the novel. Despite having been written in the 19th century in the background of the 17th century, *The Scarlet Letter* still maintains the present state because the significant open interpretations within the ambiguity can be possible even for readers today.

